

“군 사법기관 전문성·독립성 강화 지속 노력”

서육 국방부 장관,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

서육 국방부 장관이 군 사법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장병들에게 보장해주는 것이 강한 전투력의 바탕이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군 내 사건·사고 처리 시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

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 사법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 사법 개혁을 위해 22개 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 이 중 군 범죄 피해자 및 군 사망사고 유족 국선변호사 제도와 영장제도를 군기교육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은 도입을 완료해

시행 중이다.

또 장병 인권 보장과 군 수사기관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군 검찰의 성범죄자 피해자 인권보호제도를 보완하고 군사경찰의 수사·작전 기능 분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감 중 서 장관의 ‘공무원 시신 훼손’ 관련 답변이 기존 ‘국방부 발표 번복’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24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9월 24일 대국민 발표에서) 단언적 표현을 해 국민께 심

려를 끼쳐드렸다고 언급한 것은 그동안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언론·국회에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을 총격 후 시신을 불태웠을 정황이 있었다면서 ‘총격과 시신 훼손’의 과정이 추정된다고 설명해 온 것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답변이었다”며 기존 발표 번복이 아니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국민 발표 중 일부 단정적 표현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격 사망한 것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맹수열·임채무 기자



청산리 대첩 전승 100주년 의미 되새기다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주관 국립중앙박물관서 기념식 열려 정세균 총리·서육 장관·박삼득 보훈처장 등 정부 주요 인사 참석

독립군의 대표적인 승전인 청산리 독립전쟁 승리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청산리 대첩 전승 제100주년 기념식’이 2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청산리 독립전쟁 100주년을 맞아 ‘다시, 대한민국! 끝내 이기리라’라는 주제로 독립군의 항전 의지와 독립에 대한 열망을 기억하기 위해 거행됐다. 기

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서육 국방부 장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등 정부 주요 인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9면

기념식은 국방부 의장대의 추모 의식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추모 묵념, 특별낭독, 기념사, 축사,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 의식 ‘영원하소서’에서는 국방부 의장대가 독립군의 위용을 절도있게

표현했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경례는 청산리 대첩을 이끈 김좌진 장군의 외증손자인 배우 송일국이 낭독해 의미를 더했다.

이어 송일국과 뮤지컬 배우 6명이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이 승리의 역사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낭독 ‘들리시나요!’를 선보였다. 마지막은 청산리 대첩의 극적 감동과 환희를 보여준 특별 공연 ‘끝내 이기리라’가 장식했다.

보훈처는 “청산리 대첩은 독립군과 민중들이 힘을 모아 일제에 승리함으로써 대한의 굳건한 독립 의지를 보여준 쾌거”라고 설명했다. 맹수열 기자

▲ 정세균(둘째 줄 가운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국립중앙박물관 응극장에서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청산리 대첩 전승 100주년 기념식 행사를 마친 후 김좌진 장군의 증손인 배우 송일국 등 출연진과 기념사자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30초 감사/누나의 오해

경희대 학생들과 함께 가족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문자 보내기 게임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학생이 가족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부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잠시 후에 누나가 반응했습니다. “왜 저래? 사교 쳤니?” 약 30분이 흘렀고, 무언가 미심쩍었는지 누나가 다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돈 줘?” 엄마가 해명했습니다. “무슨 돈을 줘? 무슨 숙인지 모르겠네.” 누나의 오해와 엄마의 해명을 지켜보던 학생은 수업 중이라 길게 해명할 수 없어서 진땀을 흘리는 모양의 이모티콘만 올렸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 가족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단톡방에서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학생의 소감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가족과의 소통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경영연구소 소장 정지환

대체복무요원 오늘 첫 소집 63명 3주 교육 후 대전교도소 등 배치

올해 대체역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실시된다. 병무청은 “26일 대전교도소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열린다”고 25일 전했다.

이번에 소집되는 인원은 총 63명이다. 이들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전원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대체역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병역의 종류로 신앙 등에 따라 현역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제도다.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돼

복무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날 소집을 통해 대체복무요원이 된 63명은 3주 동안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표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배치된 곳에서는 36개월 동안 급식,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합숙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은 2차 대체복무요원 42명의 소집은 새달 23일로 계획하고 있다. 맹수열 기자

국방·안보의 모든 것
KOOKBANG.dema.kr
인트라넷 kdd.dema.mnd.mil